

■ 주요 뉴스: 미국 12월 전체 내구재 수주는 감소했지만 핵심 자본재 수주는 증가

- 트럼프 대통령, 보편 관세 위협 재개
- 유로존 은행들, 기업 대출태도 강화
- 일본은행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은 7월 전망이 50% 이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기술주 투자 심리, 트럼프 관세 경계감 등이 영향

주가 상승[+0.92%], 달러화 강세[+0.53%], 금리 보합[+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유로 Stoxx600지수도 동반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등으로 상승
유로화 가치는 0.6%, 엔화 가치는 0.7%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는 7년물 입찰 호조 등을 반영
독일 국채금리는 4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45.0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6.7원, 1.07% 상승). 한국 CDS 보합

주요지수					주요금리				
		1/28일	1/27일	전일대비			1/28일	1/2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67.7	6,012.3	+0.92%	국채금리 10y	미국	4.53%	4.53%	+0bp
	유럽	531.6	529.69	+0.36%		독일	2.57%	2.53%	+4bp
	중국	휴장	3,250.6	-		영국	4.61%	4.59%	+2bp
	일본	39,017	39,566	-1.39%	CDS 5y	한국	34bp	34bp	-0bp
	한국	휴장	휴장	-		중국	55bp	56bp	-1bp
	환율	달러지수	107.92	107.34	+0.54%	위험지표	EMBI+	-	359
유로화		1.0430	1.0492	-0.59%	VIX		16.4	17.9	-8.32%
엔화		155.5	154.5	-0.66%	WTI유		73.77	73.17	+0.82%
위안화		휴장	7.2446	-	원자재	구리	424.65	423.15	+0.35%
원화		휴장	휴장	-		금	2,763.5	2,740.8	+0.8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2월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2월 전체 내구재 수주는 감소했지만 핵심 자본재 수주는 증가

- 전체 내구재 수주(-2.2%, 전월비)는 예상(0.6%)과 달리 큰 폭 감소. 변동성이 큰 항공기 수주가 11월중 20.1% 감소한 데 이어 12월에도 46% 급감한 것이 배경. 항공기 및 기타 운송기기 제외 수주는 0.3% 증가
- 반면 변동성이 큰 항공기, 군용 장비를 제외한 핵심 자본재 수주(0.5%)는 예상(0.3%)을 상회했으며 11월 실적(0.9%)도 상향 수정. 핵심 자본재 출하(0.6%)도 거의 1년래 최고 수준으로 견조한 기업 투자 가능성을 시사
- 미 대선 이후 기업들은 차입 비용이 계속 높고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에 안심감을 느끼고 있을 소지.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 관세 부과를 앞두고 기업 수요가 앞당겨진 점도 영향
- Santander US Capital Markets LLC은 다양한 기업 심리 지표들이 경영진이 대선 이후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기업들이 조만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을 확신
- 애틀란타 연은 'GDPNow' 모델의 '24.4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는 3.2%(전기비 연율)로 종전(1/17일 3.0%)대비 상승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트럼프 대통령, 보편 관세 위협 재개

-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철강, 구리, 등을 포함하는 주요 분야에서의 관세 부과를 약속하고 2/1일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재확인
- 보편 관세 관련해서도 베센트 재무장관은 2.5%로 시작하는 점진적 인상을 선호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관세를 원한다고 강조

■ 미국 1월 소비자신뢰지수 2개월 연속 하락, 소비지출 둔화 가능성 시사

-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04.1로 전월대비 5.4pt 하락했으며 현재 상황 지수는 10pt 가까이 급락. 노동시장이나 경제 전반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후퇴

■ 미국 '24.11월 주택가격 상승세 가속

- 11월 S&P CoreLogic Case 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8% 상승, 전월 (3.6%) 수준을 상회. 다만 Realtor.com은 30년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어섬에 따라 금리 상승으로 매수자 수요가 억제되어 '25년 시작이 험난해질 가능성을 지적

■ 유로존 은행들, 기업대출 태도 강화

- ECB 서베이 결과, 은행들은 '24.4분기중 담보요건 엄격화 등으로 기업대출 기준을 순강화했으며 '25.1분기에 대출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경제 전망과 차입자 신용에 대한 위험 인식이 커진 것이 주요 배경

■ 독일 산업협회(BDI), '25년 독일 GDP 성장률도 -0.1%로 3년 연속 역성장 예상

- 독일 산업협회는 독일 경제가 '25.1분기에도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에 성장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공공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

■ 영란은행(BOE), 연기금 등 대상 긴급대출장치(Contingent NBFI Repo Facility) 마련

- 보험사, 연금 기금, 부채연계투자(LDI) 기관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심각한 금융 시장 경색 시 국채를 담보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

■ 덴마크, 그린란드 수호를 위해 방위비 지출 확대

- 폴센 국방부 장관은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방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해당 지역 군사력 증강을 위해 146억 크로네(19.5억 유로) 투입 계획 발표

■ 헝가리, 인플레이션 반등으로 정책금리(6.5%) 동결

■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은 7월 전망이 5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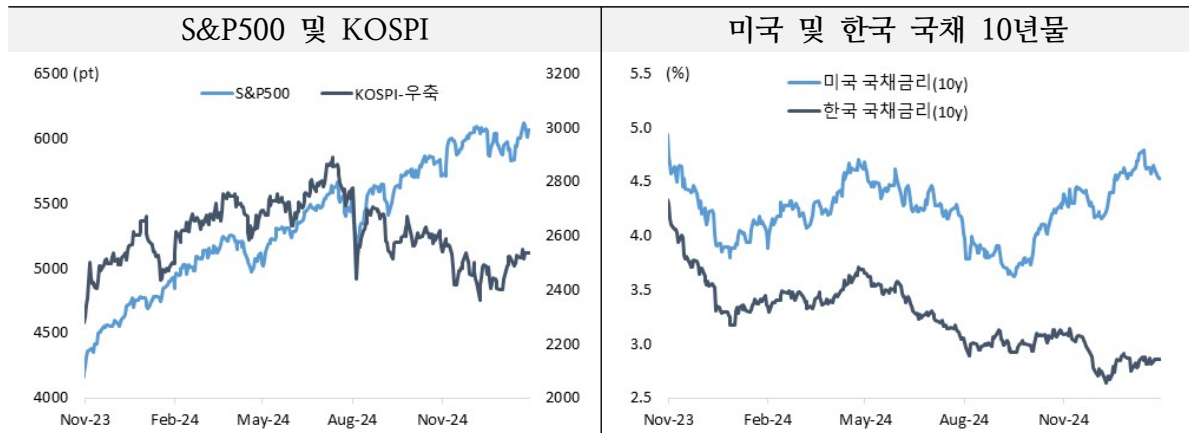
- 블룸버그 서베이 결과, 추가 금리 인상 시점으로 응답자의 56%가 7월 회의를 전망했으며 45%는 리스크 시나리오로 4월을 제시. 채권시장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BEI)은 1.6%을 상회하여 '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이는 실질금리 하락을 통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재료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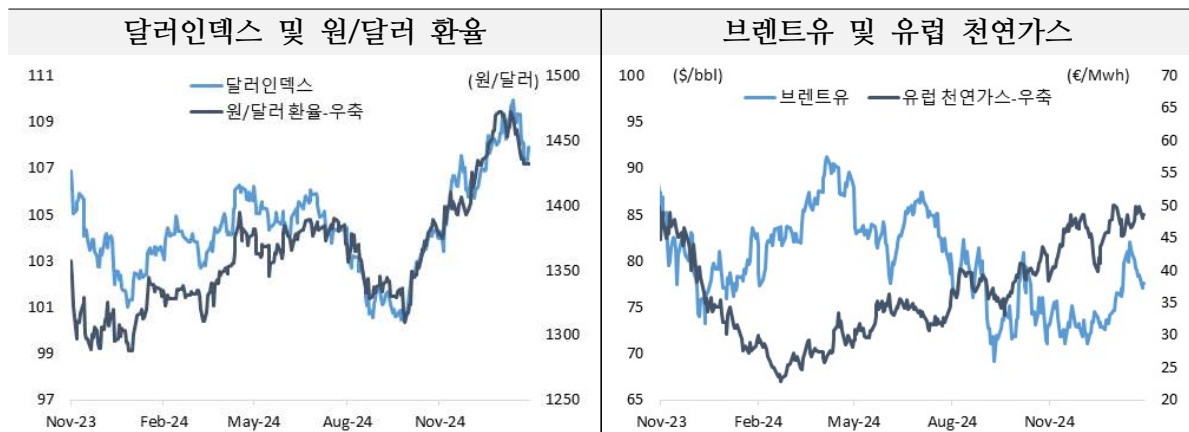
■ 주요 경제지표 이벤트(1/29일, 현지시각 기준)

- 미 연준 정책금리 결정, 미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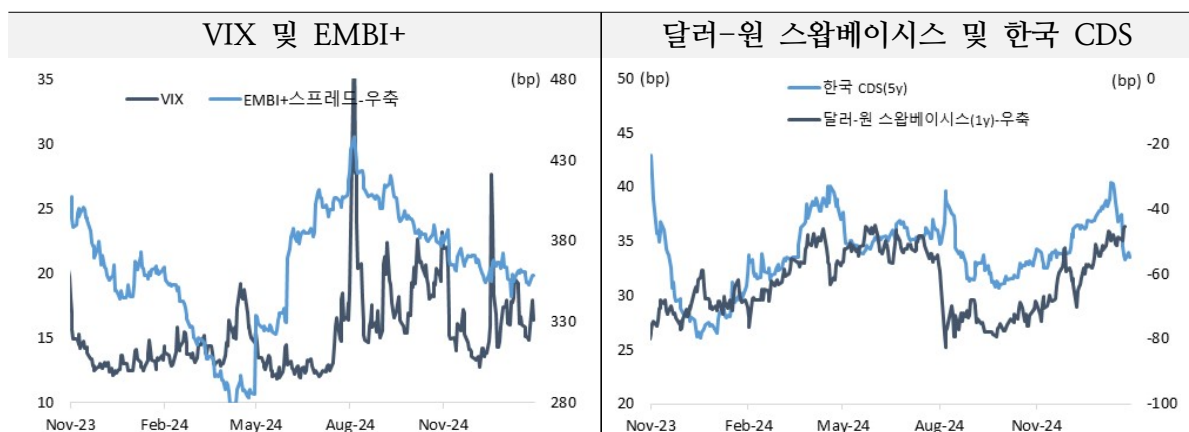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09, E-mail yskang@kcif.or.kr